



게이트웨이, 지문센서 내장 노트북 판매

미국 4위 개인용 컴퓨터(PC)업체인 게이트웨이가 지문센서가 장착된 최신 노트북을 선보였다.

C넷에 따르면 게이트웨이는 지문센서가 부착, 비 인증 사용자가 전자메일이나 파일을 접속을 했을 때 이를 불허하는 보안이 뛰어난 새 노트북 '게이트웨이 450+'를 25일(미국시각)부터 판매한다.

이 노트북은 1.3인치 두께에 인텔의 무선 인터넷 제품인 센트리노를 장착하고 있는 데 가격은 1,799달러이다.

게이트웨이의 한 관계자는 "새 노트북을 미 전역의 185개 매장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문인식 장비 같은 생체인식 기기를 내장한 노트북이 보안에 민감한 정부기관과 일부 기업,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 DVR시장 연 46% 성장

TV 방송을 녹화하는 기기인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미국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지난해말 DVR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정은 모두 320만가구로 조사됐으며, 오는 200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는 DVR를 보유한 미국 가정이 모두 2,8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IDC의 한 관계자는 "DVR 시장의 급성장은 미국의 케이블TV와 위성TV 방송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디지털 전송 방식 '미국식' 결정

멕시코 정부가 지상파 디지털 TV(DTV)전송 방식으로 유럽식(DVB-T)이 아닌 미국식(ATSC) 표준을 채택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ATSC포럼이 29일 발표했다.

이번 멕시코의 ATSC채택안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식 발표되며 다른 중남미 국가의 DTV 표준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체제에서 미국 경제의 입김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식 DTV 표준채택이 유력 시됐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의 빈센트 파스 대통령은 방송통신규제기관인 SCT(Secretary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를 통해 DTV전송방식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식 DTV표준을 지원하는 ATSC포럼은 멕시코 정부의 DTV 표준결정과 관련해 멕시코 지역경제는 물론 소비자 및 TV업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버트 K 그레이브 ATSC포럼의장은 "멕시코의 ATSC도입은 미주 대륙 8억3,000만 인구를 동일한 DTV시청권으로 통일하는 이정표이며 DTV 투자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 지역 디지털TV시장을 두고 그동안 유럽식(DVB-T)과 미국식(ATSC) 표준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결국 미국식 표준의 우세로 기우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8년 ATSC를 공식

표준으로 채택했고 칠레의 방송사도 정부측에 ATSC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또 캐나다는 지난 97년 ATSC를 DTV표준으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정식방송에 들어갔다. 또 남미 최대의 국가인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식 방식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아태지역 IT네트워크 보안시장 2006년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아시아·태평양지역 IT 네트워크 보안시장 규모가 향후 3년간 연간 13.9%씩 성장, 2006년에는 9억94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AFP통신이 프로스트&설리번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설리번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 IT네트워크 보안시장 규모가 올해는 7억5,36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인도·한국·일본의 경제성장과 사이버 공격 증가 예상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IT네트워크 보안시장에서 은행 및 금융부문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정부기관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어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정부들이 전자정부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IT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사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스트&설리번은 네트워크 보안시장의 추세는 기술통합이라고 지적하고 "판매업체들도 방화벽과 VPN, 침입탐지시스템(IDS), 바이러스 및 스팸 차단 프로그램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 전자부품업계 전략적 M&A 활발

일본의 전자부품업계에 전략적인 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파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자부품업체들은 △대형업체의 자회사간 합병 △사업 부문 M&A △대형업체간 동일 부문 제휴 등 기존의 구체형(救濟型) M&A에서 탈피해 사업 확대와 증강을 위한 '전략적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같은 전략적 M&A 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무라타제작소는 지난해 6월 오키전기의 표면파 안테나공진기 사업을 인수한 데 이어 작년 10월 쓰미토모금속일렉트로디바이스로부터 LTCC(저온동시탄생세라믹) 다층기판사업 및 하이브리드 IC사업 관련 지적재산권과 영업권을 양도받았다. 무라타제작소측은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강화 및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M&A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日 50개 전자 관련 기업 유해 6개 물질 배제

소니,캐논 등 일본의 전기 전자 분야 50개 업체가 오는 2006년 7월까지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납, 수은 등 6가지 유해 금속 및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니·캐논 등 전기 전자 분야 50개사 주축으로 이뤄진 '그린조달조사공통화협의회'는 이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한 유해물질 배제 통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화학업체 약 270개 사로 이뤄진 일본화학공업협회에 제안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합의에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체도 가세할 전망이어서 6가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업체 수는 협력업체와 거래처를 포함 1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유해물질 사용 규제 조치에 맞춰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적으로 완성품, 부품, 소재 등의 각 업체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조달조사공통화협의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제조 공정에서의 유해물질 혼입 방지 △외부 조달 부품 및 소재의 유해물질 함유량 파악 △관리 책임자의 명확화 △사업교육의 철저 등 24개 항목을 담고 있다.가이드라인은 부품 및 소재 업체가 모든 항목에서 판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납입처에 조건 충족을 선언할 수 있다.1개의 납입처에 이 선언이 공표되면 다른 납입처에까지 효과가 미친다.만일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부품 및 소재 업체의 유해 물질 관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기 전자 제품은 부품수가 많은 데다 사용하는 소재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완성품 제조업체가 단독으로 유해물질의 유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완성품 업체는 독자적인 조사 필요성이 줄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품 및 소재 업체는 완성품 업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전기전자 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05년 '휴대폰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

일본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휴대폰을 통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디지털 방송에 필요한 영상 음성 압축기술인 'MPEG4'의 특허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사와 미·일·유럽 전자업체 간의 기본 합의가 이뤄져 일본에선 이르면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휴대폰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24일 보도했다.

현재 제3세대 휴대폰에서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디지털 방송은 영상 등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전파로 보내 시청자 측의 휴대폰에 내장돼 있는 전자회로에서 복원된다. 따라서 영상 음성 압축기술인 MPEG4를 사용하지 않으면 송신이 곤란하다.

이 MPEG4의 사용을 둘러싸고 방송사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전업체나 통신기기 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 'MPEG LA' 간에 2003



년부터 교섭이 벌어졌다.

이 교섭은 MPEG LA가 '시청 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방송국 측은 '시청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거듭하다, 최근 방송국 측의 주장인 '압축기기 1대에 일정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2005년 디지털 방송의 휴대폰 시청 시대를 겨냥, 대응해 기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NEC와 산요전기 등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제품을 선보였다. 일본 총무성도 "짧은 층을 중심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인지도가 높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휴대폰이나 PDA의 가격은 그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도쿄 등 3대 도시권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다.

작년 러시아 휴대폰 시장 1,700만대

지난해 러시아 휴대폰 시장이 1689만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9.1% 증가했다고 IDC가 밝혔다.

IDC는 '러시아 휴대폰 시장 분석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총 매출액도 2002년 12억 7,000만달러에서 작년에 24억 1,000만달러로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휴대폰 출하량에서 GSM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96.1%에서 98.1%로 높아졌다. 반면 경쟁 방식인 CDMA는 확장세에 있지만 여전히 비중은 낮았다.

IDC의 한 관계자는 "경제 성장 및 실수입 증가와 더불어 GSM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모스크바와 상페테스부르크에서의 이동통신 사용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중산층 및 부유층이 증가, 시장이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고가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휴대폰 시장이 내년에 유럽지역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올 IT시장 15% 성장한 350억달러 달해

중국의 올해 IT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35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민일보가 중국컴퓨터월드(CCW)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004년 중국 IT동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하드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230억달러,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시장도 각각 전년 대비 25%, 27% 성장한 65억 2,000만달러와 55억 4,0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 공공기관과 제조업, 발전산업의 수요 증가가 IT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했

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올해 IT제품 구매액은 약 48억 4,000만달러, 제조산업과 발전산업의 구매액은 각각 34억 7,000만달러, 7억 1,342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밖에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6.9% 성장한 1억 9,952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향후 5년간 매년 18.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IT시장의 황금시대를 경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성장한 350억달러 달해 - 전자신문한편 2003년 중국 IT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 성장한 304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휴대폰 가입자 2% 늘어난 2억8,233만명

지난 2월 중국의 휴대폰 가입자는 553만명이 더 늘어나 총 2억 8,2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신식사업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한달동안 중국내 전체 휴대폰 가입자수가 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의 유선전화 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560만명이 늘어나 총 2억 7,453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전체 휴대폰 가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앞서기 시작한 상황이다.

또 지난 1, 2월 동안 중국 우편·통신사업의 매출규모는 총 110억달러로 작년 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